

뿌리가 만드는 건강한 물, 옷샘

글 · 박기영 시인

오르는 옷샘, 치료하는 옷샘

옷샘은 크게 두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옷이 오르는 옷샘이며 또 다른 종류는 옷 오른 사람을 치료 하는 샘이다. 서로 상반된 작용을 하는 샘을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나름의 까닭이 있다.

두 종류의 옷샘은 모두 샘 주위에 옷나무를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 옷이 오르는 옷샘은 인근 옷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깊이 스며 들어가 우르시울을 물 속에 풀어내는 샘으로 위장병이나 부인병에 좋은 약수로 소문이 나 있다. 또 다른 옷샘은 옷이 오른 사람을 치료하는 샘으로 물이 차고, 철분 성분이 강하거나 인근에 철해목이 무성하게 자라, 우르시울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옷이 오르는 샘보다 옷을 내리는 샘이 더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샘이다.

옷이 오르는 옷샘으로 유명한 것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 고당리에 있는 옷샘이다. 금강과 보정천이 만나는 강촌 부락에 있는 이 샘은 그 지름이 40센티가 넘는 250년 이상 된 옷나무 아래 있는 샘으로 인근 노인들의 말에 의하면 마을로 시집을 온 사람들은 이 물을 먹고 옷이 올라 며칠씩 고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외에는 대전 흑성산과 경기도 파주에 있는 것들이 알려져 있다. 옷을 내리는 옷샘으로 유명한 것은 경북 군위나 청송지역 옷샘 같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옷샘의 약리성

국내에는 모두 여섯 종류의 옷나무과 식물이 분포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다고 알려진 옷나무는 단 한 종으로 참옷나무가 그것이다. 이 나무는 식품공전에는 그 알레르기 성분 때문에 식용 사용이 금지 되어 있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 나무를

닭이나 개, 혹은 토끼와 같이 삶아서 약으로 처방해 먹었다. 옷나무의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한 처방이다.

우리 조상들은 위장병이나 지방간, 혹은 어혈과 골다공증 같은 병을 옷나무를 통해서 다스리면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일찍 발견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옷나무 속에 들어 있는 우르시울 성분이었다.

우르시울 성분은 산화성이 강해서 예민한 체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옷나무와 함께 먹은 음식을 변질 시켜 옷오름 현상으로 피부 발진, 가려움과 더불어 식중독 현상으로 발전하는 위험한 성분이다. 이 성분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옷이 오르는 옷샘이다. 우르시울 성분을 물에 녹게 만들어 독성을 완화 시키고 옷나무와 공생하는 철해목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것이다.

사라져 가는 옷샘의 부활

전국 어디에나 있던 옷샘은 도시개발과 함께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용인이나 천안에 있던 옷샘이 그러하고 청계산에 있던 옷샘도 이제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옷나무에 대한 공포감이 샘 주위 나무를



얼핏 들으면 옷이란 단어는 그리 유쾌한 단어가 아니다. 옷나무 성질이 있는 나무와 접촉으로 발생하는 이 현상은 피부 트러블 치고는 아주 고약한 성질의 것이다. 오죽 놀랐으면, 꿈에만 봐도 옷이 오른다고 했을까? 그 옷이 요즘 들어서 인기다. 옷나무에서 옷이 오르는 성분을 제거한 식품 첨가물과 건강보조 식품들이 태어나면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르는 고통만 없으면 영양 중에 영양이라고 하는 옷나무! 이 옷과 관련된 샘이 있다. 바로 옷샘이라고 하는 샘이 그것이다.



사라지게 만들었고, 아니면 샘 주위가 개발 되면서 그 샘이 땅에 묻혀 버렸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옷나무에 대한 독성 제거 기술이 발달되고, 그 안의 함유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옷샘에 대한 관심이 몇몇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새로운 옷샘 개발 작업이 그것이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옷샘을 인공적으로 만들었듯이 새롭게 옷샘을 만든 곳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청주 부근의 옷샘이 바로 그것이며, 된장으로 유명한 괴산의 한 업체

는 그 장을 담글 때 옛날 옷샘의 물을 활용해서 담근다. 이것은 바로 옷나무의 독성이 된장을 통해서 중화된다는 선조의 지혜를 활용한 것이다. 옷나무의 항암 효과와 된장의 항암 효과를 함께 이용하려는 방편인 것이다.

이제는 사라져 버린 옷샘을 다시 한번 살려 볼 필요가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제대로 된 옷샘 몇 개만 있으면 아침에 속쓰림 현상 때문에 해장국을 찾는 주당들의 고민도 줄어들 것이고, 손발이 차서 고생하는 여인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필 수 있기 때문이다. ☺



참옷과 개옷의 구별법

참고로 옷나무과 나무 중에서 참옷나무와 황칠나무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먹어서는 안된다. 더욱이 붉나무나 개옷나무 같은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개옷나무 같은 것은 잘못 먹으면 그 독성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가지고 온다. 많은 사람들이 참옷과 개옷을 구별하지 못하고, 옷땀을 해 먹고 부작용에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참옷과 개옷나무는 나무에 생긴 티눈으로 구별을 할 수 있다. 참옷의 경우에는 티눈이 한일(-)자 형태로 형성되고 개옷은 그 반대로 세로 형상으로 형성된다.